

東아세아 文字史의 흐름

李 基 文*

1.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文字 創制를 기념하는 祝日(한글날)을 가지고 있다.¹⁾ 그만큼 文字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國語學의 分野에서 訓民正音에 관한 研究는 매우 큰 重要性을 차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字學의 一般 理論이나 東아세아의 여러 文字에 관한 研究가 우리 나라에서 싹트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學問이 전반적으로 좁은 視野를 지니온 것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실은 이런 좁은 視野 때문에 訓民正音에 대한 폭넓은 理解도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訓民正音의 創制는 넓게는 世界 文字史 내지 東아세아 文字史의 흐름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위대한 文化 創造가 그러했듯이 訓民正音의 創制도 하나의 孤立된 事件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적어도 東아세아 文字史의 脈絡 속에서 옳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觀點에서 東아세아 文字史를 훑어 보려는 것이 本稿가 意圖하는 바지만, 東아세아 文字史가, 구태여 訓民正音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매우 흥미있는 研究 課題가 되는 세상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文字學의 한 중요한 영역인 것이다. 오늘날은 文字學이 言語學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東아세아의 傳統的 學問에 있어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文科 教授

1) 本稿는 지난 6月 10日 東亞研究所에서 행한 講演 草稿를 정리한 것이다.

서는 文字學이 오히려 더 큰 重要性을 지녔었다. 이런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筆者는 오늘날 文字學이 너무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觀點에서 東아세아의 文字史를 다룸으로써, 이 방면의 文字學 研究의 基礎를 쌓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本稿의 또하나의 意圖임을 여기에 밝혀 둔다.

2.

東아세아의 文字라면 누구나 곧 漢字를 생각하게 된다. 漢字는 그 오랜 歷史를 통하여 東아세아의 全域에 甚大한 影響을 미쳤다. 그것은 우월한 中國文化를 집어친 文字로서 紀元前은 말할 것도 없고 紀元後에도 第一千年期 동안은 東아세아의 唯一한 文字로 군림했으며 第二千年期에 와서도 그 勢力圈은 더욱 넓어졌다. 漢字의 歷史를 보면 그 體系와 用法이 中國 자체에서도 허다한 變化를 입었지만, 中國語와는 다른 言語를 사용하는 民族들 사이에 퍼져 그들의 손에서 또한 많은 變改를 입었다. 이러한 變改의 原因으로는 그 民族들이 지녔던, 스스로의 言語를 表記해야 할 必要性을 무엇보다도 먼저 들 수 있다.

中國에 이웃하여 가장 먼저 漢字를 받아들여 文字生活를 영위한 것은 바로 우리 民族의 먼 先祖들이었다. 이들이 처음 漢字에 接한 것은 언제인가. 이것은 자못 궁금하면서도 정확한 대답을 찾기 어려운 물음의 하나다. 적어도 漢代에는 이미 漢字에 관한 지식이 우리 민족 사이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年代 推定에 도움이 되는 증거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筆者는 年前에 文字를 의미하는 국어 단어 '글'이 漢字의 '契'에서 온 것임을 推論하고 여기서 '契'의 末子音이 'ㄱ'로 된 사실도 주목되거나와 그보다도 '契'가 文字의 뜻으로 된 사실이 더욱 주목됨을 지적한 바

있다.²⁾ 하도 아득한 옛일이라 추측하기조차 어렵지만, 이른바 ‘書契’의 단계에 이것을 우리의 先祖가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조금 想像力을 풍부히 한다면, 우리 민족의 어떤 갈래는 오랜 옛날에 漢字의 根源地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漢字를 알게 된 뒤에 두 方向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 漢字로 漢文을 쓰려는 노력이다. 漢字는 本質의으로 中國語의 表記에 적합한 文字였고 中國語와는 構造가 다른 우리의 言語를 表記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2) 그러나 國語의 表記를 성취해야 할 必要性은 매우 큰 것이므로 아무리 부적합한 文字라 해도 이로써 이 必要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人名, 地名, 官名 등의 表記는 漢文을 쓰는 경우에도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먼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漢字를 이용하는 특수한 방법이 고안되었다. 첫째는 漢字의 意味는 무시하고 그 音만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둘째는 그 意味를 이용하되, 그 意味에 해당되는 일정한 단어(새김³⁾)를 고정시켜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었다. 첫 방법은 중국에서 외국어를 표기할 때에 이미 사용된 것이니 그것을 본뜬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둘째 방법은 새로운 創案이었다. 새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漢字音의 이용만으로는 국어를 표기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國語史와 中國語史 學者들의 研究에 의하면 古代 新羅語는 그 音節의 數가 現代國語나 中世國語보다도 더 많았었고 中國語 音節의 數도 現代의 그것보다는 古代에 더 많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新羅語의 경우가 월등 많았었다. 이리하여 漢字를 이용한 新羅語의 表記에는 音을 이용한 文字와 새김을 이용한 文字가 뒤섞이게 되어, 복잡하기 이룰데 없으면서도 매우 불완전한 결과

2) 拙稿, 「‘글’에 관한 斷想」(『池憲英先生古稀紀念論叢』1980).

3) ‘天’에, ‘하늘’이란 새김을 붙여 이렇게 읽음을 말한다. 새김은 우리 나라 옛 문헌에 ‘釋’ 또는 ‘訓’으로 나타난다.

밖에 저를 수가 없었다. 鄭麟趾가 訓民正音 序文에서 吏讀에 대하여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이라 한 것은 정히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 序文뿐 아니라 世宗實錄의 여러 記事에서도 吏讀만을 舉論하고 있다. 吏讀으로써 漢字에 의한 國語 表記法을 대표시킨 것이다. 이것은 高麗末, 朝鮮初에 있어서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現代에 와서도 新羅 鄉歌가 吏讀 또는 吏讀式 表記로 적혔다고 말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오랜 遺習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漢字에 의한 國語 表記는 크게 보아 네 가지가 엄연히 구별되었고 吏讀는 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1) 固有名詞 表記. 人名, 地名, 官名등의 表記는 古代 三國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 用例들을 검토해 보면 古代 三國의 表記法이 독자적으로 발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吏讀. 이것은 漢文을 짓는 과정에서 土着 要素가 끼어든 文體라고 할 만하다. 5世紀의 高句麗 漢文에 ‘中, 之’의 用例가 보이는데, 이들이 그 첫 싹이었다.⁴⁾ 百濟의 例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新羅는 高句麗의 用例를 받아 이를 더욱 확대시켜 漢文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吏讀文을 성립시켰다.

(3) 口訣. 吏讀가 글을 짓는 과정에서 생긴 것임에 대하여 口訣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年前에 발견된 舊譯仁王經의 落張은 朝鮮朝에 있어서의 慣行과는 달리 高麗朝에 있어서는 漢文을 국어로 새겨서 읽는 법이 있었음을 보여주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⁵⁾ 이로 인하여 薛聰에 관한 기록 즉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三國史記 卷46) 또는 “以方言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授不絕”(三國遺事 卷4)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口訣에서 漢字의

4) 拙稿,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52, 1981).

5) 沈在箕,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韓國學報』1, 1975); 安秉禧,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1977) 등 참고.

略字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略字의 발달이 漢文 本文에 傍記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4) 鄉札. 新羅의 鄉歌 表記法은 漢字의 음과 새김을 이용한 점에서 위와 表記法 등과 같지만, 그것이 新羅語 文章을 적은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어느 것과도 同一視될 수 없다. 물론 그 成立에 있어서는 위의 表記法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 鄉歌의 표기법은 저들과 同列에 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漢字를 이용한 表記法의 集大成이었다. 均如傳에 나오는 ‘鄉札’이란 말로 이 표기법을 부르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鄉札은 高麗初에도 널리 사용되었었는데 後期로 내려와서 쇠퇴하였다.

漢字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입은 變改로는 위에 말한 用法上的의 그것이 두드러지지만, 그 體系 자체가 입은 變改도 중요한 것이었다. 위에서 口訣에 略字가 발달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것은 漢字 體系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變改였다. 어떤 漢字는 割數가 매우 많아 그것을 줄이려는 경향이 예로부터 있었지만 口訣의 略字는 이런 부분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略字法이 日本으로 전하여 ‘假名’이 성립된 것을 생각해도 그 중요성은 쉽게 인식된다. 더 크게 보면 이것은 요즈음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簡化字 方案의 先驅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 口訣의 略字法이 대담하게 확대되었더라면 그 결과는 漢字에 대한 一大革新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漢字는 중국의 문자라는 의식이 이런 독특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漢字 體系上的 變改로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漢字들을 들 수 있다. 종래 俗字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는데, 이 俗字의 실상은 시대에 따라 달랐었다. 歷代의 俗字에 대한 研究는 하나의 흥미있는 課題로 남아 있다.

以上은 漢字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입은 變改를 略述한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 文字가 中國語와 構造가 다른 言語를 가진 민족에 수용되어 입은 최초의 變改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디까지나 漢字의 體系나 그 用法에 부분적인 變改을 가하여 독자적인 수요에 응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와 같은 類型의 變改를 日本에서도 볼 수 있다.

日本은 우리 나라의 뒤를 매우 충실히 따랐다. 日本語의 경우는 音節의 數가 적어⁶⁾ 漢字의 音만 이용해도 간단히 自國語를 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先例를 좇아 새김까지 이용하는 복잡한 방법을 취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차이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音讀字만으로 글을 쓴 예가 古代에 이미 있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漢字의 略字로 文字體系를 성립시킨 점이다. 草體에서도 같은 體系를 성립시켜 日本에서 두 ‘假名’ 體系가 사용되어 왔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리고 새김으로 읽는 법(訓讀法)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도 우리 나라와는 다른 점으로 들 수 있다.

越南에 있어서의 漢字의 受容은 우리 나라와는 아무 관련 없이 이루어져 독자적인 方向으로 變改가 일어났음은 주목할 만하다. 漢字가 異民族의 손에서 입을 수 있는 變改의 또하나의 可能性을 보여준 점이 흥미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14世紀에 와서야 越南語 表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시기는 우리 나라보다 늦었지만, 新造字를 量產함으로써 既存 漢字의 테두리를 벗어난 점에서는 오히려 대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新造字들은 ‘字喃’(chu-nom)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본래의 漢字(字儒 chu-nyu)와 字喃의 混用文이 쓰이게 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字喃의 가장 오랜 예는 14世紀 中葉(1343)의 한 碑文에 있는 村名 등의 표기라고 한다.⁷⁾ 字喃을 보면 漢字의 音만 빌어 越南語 단어를 나타낸 것, 그 略

6) 이것은 日本語의 開音節性에 말미암는다. 古代日本語의 音節數는 87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 H. Maspero, “Études sur la phonétique historique de la langue annamite.” *Bulletin de l'Ecole Francaise d'Extrême-Orient* XII (1912).

體로 나타낸 것도 있지만, 두 漢字를 합하여 새로운 文字를 만든 예들도 있다. 이 新字를 만드는 데는 漢字의 會意와 形聲의 方法이 적용되었다. ‘天’ 밑에 ‘上’을 받쳐 ‘하늘’의 뜻으로 쓴 것은 會意의 예요, ‘巴’로써 音을 나타내고 거기에 ‘三’을 붙여 써서 意味를 나타낸 것(越南語 ba)은 形聲의 예다.

以上 우리 나라와 日本, 越南의 경우를 略述하였다. 이들은 크게 보아 漢字圈을 이루었었다. 이 文字를 이용하여 自國語를 표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漢字의 原體系가 존중되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보다는 日本이, 그리고 越南이 더 原體系로부터 逸脫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逸脫의 程度는 곧 중국 문화의 중심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소원한 정도와 비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에서 自國語를 표기하려는 노력은 漢字의 利用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15 세기에 漢字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文字體系인 訓民正音を 창제하였고, 越南에서는 宣教師들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字化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訓民正音が 창제된 뒤에도 漢文이 文字生活의 上層部를 지배해 왔음에 대하여 越南에서는 로마字化로 漢字의 굴레를 벗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흥미있는 對照라고 하겠다. 이 역시 위에 말한 중국 문화의 중심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다.

3.

中國의 東北 및 西北 周邊에 있었던 契丹(遼), 西夏, 女眞(金)의 文字史는 위의 漢字圈의 그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들 나라에서는 自國語의 표기를 위한 새로운 文字體系를 만들려는 노력이 本格的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노력은 10 世紀에 契丹에서 시작되었다. 西夏나 女眞은 正녕 이 契丹의 先例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契丹文字, 西夏文字 및 女眞文字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東西의 몇몇 學者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 西夏文字의 연구에서 가장 큰 수확이 있었다.⁹⁾ 女眞文字는 女眞館譯語에 의하여 진작부터 알려진 바 있었으나 그 解明은 지금도 벽에 부딪친 채로 있다.⁹⁾ 契丹文字는 거의 완전한 神秘의 베일에 싸여 왔으나 최근 數年間의 노력으로 그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린다.¹⁰⁾ 이들 文字의 解讀에 더 큰 노력이 傾注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이들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들 文字는 外形上 漢字의 모습을 방불하게 하는 공통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漢字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變形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女眞文字가 漢字에 가장 가까운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이요 그 體系 전체를 볼 때 漢字와만 결부시킬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세 體系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西夏文字의 體系는 다른 두 體系와 관연히 다름이 드러난다. 그리고 契丹文字와 女眞文字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서로 사이의 차이는 현격하여 女眞文字의 獨自性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볼 때,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漢字圈의 北方 周邊에서 새로운 文字體系가 하나도 아니요 셋씩이나 만들어진 것은 생각할수록 신기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는 필시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는 매우 흥미깊은 것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契丹文字의 創制에 있어서는 突厥文字가 자극을 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契丹族 사이에

8) 西田龍雄, 『西夏文字』(東京, 1967) 참고.

9) W. Grube, *Die Sprache und Schrift der Jučen (Leipzig, 1896)*; G.N.Kiyose, *A Study of the Jurchen Language and Script* (Kyoto, 1977) 등 참고.

10) 지난 70年代 이래 內蒙古의 學者들이 중심이 되어 契丹文字 研究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다.

는 突厥文字에 대한 지식이 전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突厥文字에 대해서는 後述하겠거니와, 契丹文字에 表音文字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突厥文字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文字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는 것은 本稿의 규모나 筆者의 능력을 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研究 成果 중에서 이들을 특징짓는 몇가지 사실을 摘記하는 것은 本稿의 앞으로의 敘述에 不可缺한 것으로 생각된다.

契丹文字의 體系에는 表意字와 表音字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많은 契丹文字는 둘 또는 세 要素가 합쳐서 한 文字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表音字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성 방법이 漢字의 영향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훈민정음의 그것과 같다고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구성 요소들이 훈민정음의 경우처럼 音素에 對應되는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가 이 文字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해답을 얻고 있는지 자못 궁금함을 금할 수 없다.

西夏文字는 表意文字 體系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漢字와 마찬가지로 一字가 一音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體系에는 모두 6천자 남짓한 문자가 있는데 이들은 350 정도의 基本要素의 相異한 結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결합의 방법은 上述한 契丹文字의 경우와 같이 漢字를 본뜬 것인데, 두개의 요소를 결합하는 경우에 左右 또는 上下로 할 수 있는 점, 세개의 요소를 左右 一線上에 나란히 쓸 수 있는 점 등이 다르다. 많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한 文字를 구성하기도 한다. 西夏文字의 이 기본 요소들은 어떤 意味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 體系는 會意의 方法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론할 수 있다.

女眞文字의 體系는 분명히 表意字와 表音字로 구성되어 있다. 그 表意字들을 보면 漢字에 點이나 어떤 부호를 붙인 것, 또는 漢字를 다소 變形시킨 듯한 것, 漢字와는 얼핏 연관이 지어지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자세한 統計는 없으나 현재 알려진 女眞字의 총수는 700을 넘는데, 表意字가

表音字보다 조금 많은 듯한 인상을 준다. 表音字는 音節을 나타냄에 대하여 表意字는 單語를 나타내므로 一字가 몇 音節로 읽히는 경우도 있다. 이 女眞文字는 上述한 두 體系와는 달리, 各字가 더 분석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各字의 劃數가 적은 것이 이 文字의 특징이기도 하다. 복잡한 글자라도 10 획을 넘지 않는다.

위에 말한 세 文字는 縱書하며 右에서 左로 行이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 漢字의 영향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 文字들이 王의 親製 또는 王命으로 制作된 사실, 그리고 모두 建國 직후에 만들어진 사실은 매우 흥미깊다. 契丹文字는 遼의 建國 직후에 이루어졌다. 大字와 小字의 구별이 있었는데 大字는 太祖 耶律阿保機가 920년에 親製하였으며, 몇 해 뒤 그의 동생인 迭刺이 위굴(Uighur)의 使者로부터 배워서 小字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아온 契丹文字는 小字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위굴의 使者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突厥文字가 아니었던가 한다. 위굴族은 이 무렵에는 속디안(Sogdian) 文字를 썼으나 아직 突厥文字도 併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으로 해서 종래 契丹文字와 突厥文字의 관련을 밝히려는 노력도 있었다. 西夏文字는 景宗(李元昊)이 1036년에 國字로서 公布한 것이다. 이것은 新興國家의 文化政策의 한 具現이요 젊은 統治者의 큰 意慾의 產物이었다. 西夏文字가 表意文字로 된 것은 漢字의 영향일 것이지만, 그 나라를 구성한 여러 민족의 언어의 차이도 한 원인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女眞文字에도 大字와 小字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大字는 1119년에 太祖의 命을 받아 完顏希尹이 漢字의 楷字를 본뜨고 契丹文字에 의지하여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뒤 1134년에 熙宗이 친히 또하나의 文字를 만들어 1145년부터 사용하게 한 것이 小字였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女眞文字資料는 아마도 小字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大字는 어떤 文字였는지 앞으로 자료의 출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4.

東아세아의 西部와 北部에 위치한 西藏族과 알타이族들은 멀리 小아세아에서 印度나 中央아세아를 거쳐 들어온 文字들의 흐름 속에 있었다. 이들은 애초에 漢字의 影響圈 밖에 있었던 것이다. 이 넓은 지역에서 사용된 文字에는 세 系統이 있었다.

첫째, 古代 토이기族이 세운 突厥國이 남긴 8세기의 碑文들이 보여주는 文字는 흔히 토이기 ‘문’ 文字(Runic script)라고 불린다. 19세기말에 이 문자가 처음 해독된 이래 이 문자의 起源 問題에 대해서 아람文字(Aramaic script) 說을 비롯하여 몇 가지 說이 제기되었다.¹¹⁾ 아직 定說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으나 이 문자의 기원을 西方에 구하고 있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 엄격한 音素文字 體系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나 40울 헤아리는 記號로 古代 토이기語를 표기하였다. 이 文字는 위궤人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었으나 中世 이후에는 그 전통이 완전히 끊어졌다.

둘째, 古代 위궤人들은 일시 突厥文字를 사용한 일도 있었으나 이보다 간편한 속디안文字로 自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었다. 이 文字의 特徵은 各字의 語頭形, 語中形, 語末形이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子音은 비교적 정확히 표기하였으나 母音의 표기는 극히 불완전하였다. 이것은 세미틱 계통의 문자들이 지녔던 결함이었다.

이 위궤 文字가 蒙古에 들어와서 蒙古語 표기에 사용되었다. 이 文字가 몽고에 들어온 年代는 확실치 않다. 1225년에 세워진 世稱 成吉思汗石(실은 그의 조카 Yesunke를 위하여 세운 비석)의 글의 표기법이 자못 정제된 사실로 보아, 아마도 12세기에 遡及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

11) 突厥文字에 대해서는 T. Tekin, *A Grammar of Orkhon Tunkic* (Bloomington, 1968) 참고. 研究史와 參考文獻이 제시되어 있다.

자도 있다.¹²⁾ 처음에는 본래의 체계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몽고어에 맞게 개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文字體系로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몽고어의 모음이나 자음을 분명히 구별하여 표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지금도 內蒙古에서는 이 文字를 쓰고 있으나 外蒙古에서는 이것을 버리고 키릴文字(러시아文字)를 다소 수정한 文字體系를 사용하고 있다.

이 蒙古文字가 다시 滿洲에 들어와 滿洲文字로 발전한 것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일이었다. 滿洲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만주족은 글을 쓸 때에는 蒙古文을 썼었는데 1599년에 淸太祖가 몽고문자로 만주어를 표기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자에 의한 만주어의 표기는 매우 부정확하였다. 그리하여 淸太宗은 1632년에 Dahai Baksi에게 명하여 이 문자를 개량하게 하였던 바, 그는 圈과 點을 붙여 모든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을 有圈點 滿洲文字라고 한다.¹³⁾ 오늘날 전하는 대부분의 滿洲語 文獻은 이 有圈點文字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古代에 멀리 中央아세아를 거쳐 들어온 위글文字의 흐름이 드디어 鴨綠江 건너편에 도달한 것이다. 東아세아 文字史에 있어서 이 흐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것은 세미틱 계통의 문자체계가 波及한 동쪽 끝이었다. 이것이 北方經路를 통한 것임에 대하여 南方經路를 통한 또 하나의 물결이 있었다. 그것은 印度를 거쳐 西藏에 들어와 이루어진 西藏文字와 이 文字에 기초를 둔 八思巴文字였다.

八思巴文字는 元世祖의 命으로 西藏 출신의 高僧 八思巴(hP'ags-pa)가 西藏文字를 기초로 하여 완성한 것이다. 모양이 네모난 것이 특징이어서 方形文字(몽고어로 dörbeljin üsüg)라고도 불린 이 문자는 몽고어뿐 아니라 元帝國 안의 여러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하나의 國際的 文字로서 만들

12) 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1954).

13) 拙稿, 「만주어 문법」(『한글』 123, 1958); 成百仁, 『만주어 음운론 연구』(1981) 참고.

어진 것이다. 이 문자는 1269년에 元帝國의 文字로서 頒布되었다. 이 文字는 音節文字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문자였다. 이 문자로 中國語를 표기한 자료들도 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表音文字로 中國語가 표기되기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던가 한다.

위에 말한 文字들의 歷史에서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縱書化의 경향이다. 본래 속미얀文字는 글을 右에서 左로 橫書하던 것이 위굴에 와서 縱書로 변하면서 行順은 左에서 右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점은 滿洲文字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西藏文字는 左에서 右로 橫書하였는데, 八思巴文字에 와서는 역시 縱書로 변하였고 左에서 右로 行이 나아가게 되었다. 漢字圈에 가까워지면서 縱書化의 경향이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文字들은 글을 쓸 때에 單線의으로 배열되는 점에 있어서, 위에서 본 契丹文字와는 다르다. 다만 위굴 제통의 文字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單語의 境界가 空白으로 표시되지만 八思巴文字는 音節의 境界가 空白으로 표시되는 점이 다르다. 八思巴文字가 漢字에 더 가까운 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八思巴文字는 中原에서 만들어졌으나, 本章에서 略述한 文字들은 東아세아 文字史에서 볼 때 塞外圈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塞外圈은 앞서 말한 漢字圈과 또 그 周邊圈 밖에 있었던 것이다. 東아세아의 諸文字가 이렇게 크게 세 文字圈으로 나뉘어지는 사실은 이 지역의 歷史, 文化 全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示唆를 던져주는 것으로 믿는다.

5.

마지막으로 東아세아의 文字史에서 言及해야 할 文字로 訓民正音이 있다. 訓民正音의 創制는 世宗 25年(1443)에 이루어졌고 28年(1446)에 頒布되었다. 訓民正音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에 관련된 허다한 의문을 풀어줄 一次的 資料가 적은 것이 큰 난관이 되어 왔다. 지난 1940 年에 訓民正音 原本(世稱 解例本)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많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영원한 未決 狀態로 남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訓民正音 頒布에 즈음하여 간행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 어느 학자도 이 책을 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의 우리가 이 책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解例에서 우리는 비로소 訓民正音 制字의 原理와 方法에 대한 決定的인 證言을 얻었던 것이다.

訓民正音에 대해서는 論議하고 싶은 것이 많으나, 여기서는 위에서 본 東亞세아 文字史의 觀點에서 몇가지 사실을 지적함에 그치려 한다.¹⁴⁾

우선 訓民正音 創制의 年代가 새삼 주목된다. 왜냐하면 그 때는 前章에서 논한 塞外圈의 文字들이 우리 나라에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속단 안 文字와 突厥文字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만, 그 밖의 문자들은 대개 알려져 있었음이 확실하다. 蒙古의 위글文字와 八思巴文字는 司譯院에서 시험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¹⁵⁾ 梵字에 관한 지식이 있었음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 文字에 대한 지식의 기초 위에서 世宗은 音素文字 體系를 만들려는 着想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訓民正音은 정녕 塞外 文字의 흐름 속에서 잉태된 것이었다. 그러나 世宗은 既存의 어느 體系를 개량하여 새로운 國字를 삼아온 世界 文字史의 慣例를 拒否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 우리 나라에 알려진 어느 文字보다도 완벽한 音素文字 體系를 獨創의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독창적인 音素文字가 中國에 다음 가는 漢字의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다. 漢字圈의 나라들의 文字史는 漢字 變形의 歷史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우리 나라의 文字史는 訓民正音의 創制로 하여 이 類型을 깨 것이다. 이것은 우리 民族의 높은 創造의 能力을

14) 拙稿, 「訓民正音 創制의 基盤」(『東洋學』 10, 1980) 참고.

15) 拙稿, 「蒙學書 研究의 基本 問題」(『震檀學報』 31, 1967) 참고.

보여준 것이지만, 中國의 學問과 文化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根底에는 그 본래의 傳統이 연면히 이어져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塞外 즉 ‘夷狄’의 전통이었다. 崔萬理의 上疏는 이러한 사실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上疏는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惟蒙古 西夏 女眞 日本 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라고 지적하고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族夷狄”이라고 통탄하였는데, 이 말은 訓民正音이 ‘夷狄’ 文化의 所産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訓民正音의 獨創性的 기반이 된 것은 世宗 시대의 우리 나라의 音韻學 및 文字學이었는데, 이들은 본래 中國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 발전된 것이었다. 世宗 시대의 우리 나라에서 발달된 音韻 理論은 그 당시로서는 東西를 통털어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이런 학문적 연구가 訓民正音 속에 응결된 것이다. 訓民正音은 흔히 科學的으로 만들어진 文字라고 하는데, 이 말은 文字의 형태 자체와 그 체계가 科學과 직결된 것임을 의미한다. 일찌기 人類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의 새로운 試圖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訓民正音 創制의 기반이 된 學問이 中國에서 왔을 뿐 아니라, 訓民正音에 漢字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初聲・中聲・終聲을 한 덩어리(音節字)로 결합하는 방법은 漢字에서 온 것이다. 縱書를 하고 行이 右에서 左로 나아가는 것도 역시 그렇다. 이런 점들은 契丹文字나 西夏文字에서도 마찬가지였다. 訓民正音 創制에 있어서 이들 文字를 참고했는지는 결정하기 어렵지만, 일례로 西夏文字에 加刪의 原理가 있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訓民正音이 朝鮮 建國初에 世宗의 親製로 이루어진 사실이 契丹文字 西夏文字등의 先例와 一致한다.

지금까지 論述한 바를 要約하면 訓民正音은 東아세아의 여러 文字의 흐름이 이 땅에 와서 한데 어울려 集大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合流가 아니라 새로운 創造였기 때문이다.

Remarks on the History of Writing Systems in East Asia

Lee, Ki-moon

The present paper is an attempt to make a survey on the history of the writing systems in East Asia, mainly with the view of clarifying the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the Korean script, Han'gŭl, in the middle fifteenth century. There have been extensive studies on the various problems involving the creation of the Han'gŭl system, especially on its theoretical bases.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script was created.

The writing systems which were used by various peoples in East Asia prior to the advent of the Han'gŭl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basic characteristics and genetic relationships. (1)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used not only by the Chinese but also by the Koreans, Japanese and Vietnamese. There were various efforts among these foreign users to utilize the characters to transcribe their own languages. (2) The Kitan, Hsi-Hsia and Jurchen scripts. These scripts were created and used by the peoples who founded their states on the northern border of China. Although these scripts clearly show the influence from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ir structures, they are still largely undeciphered. (3) The Turkic runic script, the Uighur script and the ḥP'ags-pa script. These scripts represented the alphabetic systems which ultimately were derived from the Aramaic script. The Uighur script has also been used by the Mongols since the thirteenth century. These scripts were distributed on the peripheral regions of East Asia.

The Korean script can be regarded as the culmination of the long

history of writings in East Asia. As an alphabetic system of writing, it can not be denied that it is related with the above-mentioned group (3). There is no doubt that most of the scripts in the group (3) were known to the Koreans in the fifteenth century. The Han'gŭl system, on the other hand, shows several features which characterized the scripts of the group (2). We can mention, among others, the syllabic grouping of letters. The Han'gŭl system, however, was not a modification of any system mentioned above in any respects. It was created on the basis of the theories which were developed by the Korean specialists in phonology and grammatology. The consonant letter shapes, for instance, were the depictions of the speech organ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sonants themselves. Han'gŭl is a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